

일요일이라고 엄청 늦게 일어나 버렸다. 12시에 일어난 나를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또다시 한심하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았다. TV를 켜보니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인 '출발비디은 여행'이 하지 않았다! 류현진이 나오는 야구가 대신 방영되고 있었다. 나는 야구가 끝나면 방영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독서실도 가지 않고 죽치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끝내 방영되지 않았다.

우울한 마음으로 독서실에 도착하니 내쪽 줄에 학생이 한명도 없었다. 결국 애들이라고 먼저 잘 안된다. 나도 저만 할땐 독서실을 거의 안갔으니 이해는 간다. 끝이어서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애가 들어왔다. 그애는 잔뜩 뜯은 얼굴로 "정아야 은빛이가 강아지 샀대! 지금 은빛이네가 보러 가자"라며 말했다. 여기서 은빛이는 또다른 초등학교 때 친구다.

내려가 보니 친구의 강아지가 있었다. 몇개월 안됐다고 하는데 내눈엔 엄청 커 보였다. 내가 카우는 강아지가 크기가 작은 치타라 다른 강아지들은 모두 커보였기 때문이다. 친구는 용한여고에 준비물을 나뉘어서 가지러 간다고 했다. 따뜻한 날씨에 나도 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시키고 숲어 켜다. 코카를 데리고 나서 아유희랑 만났다. 개가 나한테 김밥 2줄을 주었다. 유희네 김밥은 정말 맛있다. 유희가 아버지가 를 본다고 가버리고 난 박지원이랑 만났다. 셋이서 코카랑 놀고 각자 집으로 갔다. 집에오니 5시 쯤 되었다.

6시에 집에 아버지가 왔고 치킨을 시켜주었다. 나는 먹고 바로 독서실에 갔지만 일요일 24시간중 내가 공부한 시간은 4시간 정도 였던 것 같다. 고3이어서 정말 양심없는 주말을 보낸 것이다. 다음주에는 아침에 일어나 TV를 보고 바로 독서실에 가야겠다.